논어 3편 팔일 8장 · 원문·풀이

子夏問曰：「『巧笑倩兮，美目盼兮，素以爲絢兮。』何謂也？」子曰：「繪事後素。」曰：「禮後乎？」子曰：「起予者商也，始可與言《詩》已矣。」

독음 · 자하문왈 교소천혜 미목반혜 소이위현혜 하위야 자왈 회사후소 왈 례후호 자왈 기여자상야 시가여언시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아름다운 바탕을 갖춘 뒤에 그림을 그리듯 예에도 바탕이 필요하다. 자하가 그 뜻을 짚자 공자는 함께 시를 논할 만하다고 칭찬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夏 여름 하 하 / 問 물을 문 문 / 曰 가로 왈

巧 공교할 교 교 / 笑 웃음 소 소 / 倩 예쁠 천 천 / 兮 어조사 혜 혜

美 아름다울 미 미 / 目 눈 목 목 / 盼 곁눈질 할 반 반 / 素 흴 소 소

以 써 이 이 / 爲 할 위 / 絢 채색무늬 현 현 / 何 어찌 하 하

謂 고할 위 위 / 也 어조사 야 / 繪 그림 회 회 / 事 일 사 사

後 뒤 후 후 / 禮 예도 례 례 / 乎 어조사 호 / 起 일어날 기 기

予 자기 여 여 / 者 놈 자 / 商 헤아릴 상 상 / 始 비로소 시 시

可 옳을 가 가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言 말씀 언 언 / 詩 귀글 시 시

已 이미 이 이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